

악수 등 대면접촉 금지...인지도 낮은 정치신인들 불멘소리

민주당 광주시당 신종코로나 여파 선거운동 제한

공천적합도 여론조사 앞두고 전화·메시지·SNS홍보 총력 일부후보 현장 선거운동 계속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의 당락을 가를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내 기반이 미약한 일부 후보들에게 선거운동 제한은 불리하기 때문에 일부 후보자들은 당의 제한 방침에도 현장 선거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공천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지역구별로 진행되는 적합도조사를 앞두고 후보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이에 선거 운동 제한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후보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비롯한 온라인 홍보를 대폭 늘리고, 최근 온라인을 통해 유행하는 '유명 가수 춤 릴레이 따라하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이색 온라인 선거운동 전략도 나오고 있다.

2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예비후보자들에게 '제21대 총선 선거운동 지침' 공문을 보내 오는 7일까지 8일 동안 선거운동 일부 제한 방침을 이행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재래시장이나 번화가, 행사장 등 많은 수의 인원이 왕래하는 곳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하고, 상가 방문이나 유권자 악수 등 대면 접촉도 금지된다.

민주당은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에 집중하도록 하고 출퇴근 인사 등 대면 접촉이 없는 선거운동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어떤 정치 정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들은 공천적합도 여론조사를 코앞에 두고 선거운동을 사실상 중단시킨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경우 기존 정치인들보다 인지도가 떨어져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은 사실상 손발을 묶어 놓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대면 접촉을 금지한다고 해서 예비후보들이 실제로 지침을 따르지도 의문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휴일이었던 2일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는 지역 내 조기축구 동호회의 경기장을 찾은 다른 후보도 시민사회단체의 행사장을 찾는 등 여전히 현장을 돌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 한 예비후보도 여전히 지역 내 갈등을 빚고 있는 나주SRF발전소를 찾아가며 남긴 사진을 이날 SNS에 홍보하고 있다.

반면, 대다수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SNS 홍보를 늘리는 대신, 현장 활동을 눈에 띄게 줄이고 이색 SNS 홍보 방법을 찾고 있다.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는 최근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명 가수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을 릴레이로 제작해 SNS에 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민주당 경선의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적합도조사를 앞두고 후보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후보들은 적합도조사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이 조사를 통해 자신을 지지해 줄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또 적합도 조사를 앞두고 후보 각 진영은 앞다투어 지역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한 예비후보는 "당의 방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하는 후보자의 간절함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선대위는 '잠룡들의 무대'

이낙연 총로·수도권선거 맡아 이광재·김부겸·김두관도 출동 호남주자 임종석 합류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선거대책 위원회가 '잠룡들의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뿐 아니라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 등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선대위 합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만큼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차세대 주자인 전남 출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 여부도 지역민들의 관심사다.

우선 이낙연 전 총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정치1번지'인 서울 중로에서의 당선이다. 이 전 총리에게 '중로 승리'는 당내에서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당의 제안에 따라 강원 선대본부장을 맡는다. 당 지도부는 나아가 그의 강원 출마까지 기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 불리는 TK(대구·경북) 선거는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김부겸 의원에 맡겨질 전

망이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를 수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2016년 총선에서 당선, 대구에 민주당 깃발을 꽂은 그가 이번에 연승한다면 이남·지역 확장성을 가진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총선에서 부산의 '말항'으로서 '민주당의 부산 5석 확보' 이끈 김영춘(부산 부산진갑) 의원에 부산 수성 과제가 맡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지역구인 경기 김포갑을 떠나 경남 양산을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의원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김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만큼 당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잠룡들의 전초전'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남의 차세대 주자인 전남 출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 여부도 지역민들의 관심사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총선 출마 여부도 관심사다. 임 전 실장이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해 지역 민심은 깊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 출마, 정치적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과감하게 광주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호남 선대위원장을 맡아 호남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호남 정치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호남이 정치적 협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마 명분이 약하고 지역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文대통령 "민관 총력대응" 전문가 신종코로나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보건·의료·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국무회의에도 관련 광역자치단체장을 참석하도록 해 중앙정부·자치단체 간 협력·공조를 강화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한영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망자가 중국에서 300명을 넘기고 중국 밖 필리핀에서도 발생하는 한편 국내 감염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나는 등 확산 추세를 보이자 다시 한번 국가적인 총력 태세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로운 검사법에 따라 검사시약 개발의 기간을 단축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국민안전에 두고 이번 사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고, 민간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역부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저지까지 전 단계에 걸쳐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국내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신당은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 정당 지향"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신당 창당의 3대 지향점 및 차별점으로 내세웠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 아니다"며 "이 정당을 통해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을 파괴하며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시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우선 '작은 정당'과 관련, 정당 규모와 국고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위주로 많이 배정되는 국고 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정당별 개

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당 밖의 민간 연구소나 정책현장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내는 작지만 유능한 '네트워크 정당'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당원들이 당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국민 사이에 이견이 있는 쟁점이나 이슈를 해결하는 '공유정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 여러 시민이 모여 해결, 해소하는 것이 이슈라 시 정당"이라며 "한번 만들어서 잘 동작하면 다른 정당에서도 따라 하기 바랄 것"이라고 했다.

신당의 비전으로는 '탈(脫)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을, 정치노선으로 '실용적 중도'를 내세웠다. 안 전 의원은 "중도는 중간에 서는 게 아니다. 중심을 잡는 것"이라

며 "이런 것을 두고 모호하다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하거나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 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 인프라 구축, 정당법 개혁, 국회법 개혁 등을 통해 '일하는 정치,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전 의원은 신당 창당 시기와 당명에 대해서는 "내일쯤 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맡을 분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그러면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전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꼽히는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수민, 권은희, 이태규, 신유현, 김중호, 김삼화 등 안철수계 의원들이 참여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 국내복귀기업

KOTRA는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 선도 kotra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제도 안내

입자·설비 보조금 지원	법인세·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	------------------	--------------------	--------------------

선정요건

- 01** 2년 이상 해외 제조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02**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으로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중설 사업장을 운영할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지분 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03**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영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04**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중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더 많은 선정요건/지원제도가 궁금하시다면?
문의처 : KOTRA 유턴지원팀
☎ 02-3460-7361~5
✉ sc.kim@kotra.or.kr / jjunga@kotra.or.kr